

“내 가족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호성동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점심 봉사활동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박경규)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회장 주분례)회원 20여명은 17일 관내 복지시설 전주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중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주 사랑의 집은 노숙인 및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 요양시설로 6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호성동 사랑의 울타리 회원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랑의 집을 방문해 시설입소 원생들을 위한 환경정비와 중식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주분례 사랑의 울타리 회장은 “내 가족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였다. 맛있게 드시고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규 동장은 “관내 소외계층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호성동 사랑의 울타리 회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주위를 돌아보기도 힘든 때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감동이 지속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박경규)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회장 주분례)회원 20여명은 17일 관내 복지시설 전주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중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동장 송문석)은 지난 16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새마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2017년도 사업세출 결산보고와 2018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지난 한 해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8년 지역을 위해 추진할 봉사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는 전국읍면동공동체사업에 참여하여 소외계층 입수리, 홀로어르신 중식봉사, 계절별 환경정비, 환경미화원 식사대접, 이머용봉사, 쓰레기 취약지 마을화단 조성 등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2015 시군구협의회 종합평가 대상, 새마을중앙회 읍면동공동체운동 전국 1등, 2016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모범적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채규남 기자

중화산2동 은시문 동장, 경로당 방문 난방상태 점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은시문 동장은 16일 관내 11개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께 부임인사를 드리고 폭설 피해 및 경로당 난방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전주시 정기인사로 승진하여 중화산 2동에 부임한 은시문 동장은 부임하자마자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 인사드리고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청소 취약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에 나섰다.

은시문 중화산2동장은 “제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다.”며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이석문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장(66)이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1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3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13대 정명례 회장(중앙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임, 제14대 이석문 회장(삼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취임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제14대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석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정명례 전임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전주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야기가 귀 기울이고 함께하며 마을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33개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주민들의 자치활동 강화와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삼천1동 김성남 동장, 경로당 방문인사·소통의 시간 가져

새로 부임한 완산구 삼천1동 김성남 동장은 지난 17일 관내 12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취임인사와 함께 겨울철 불편은 없는지 안부를 물었다.

특히 최근 갑작스런 한파가 몰려오는 가운데 빈관길은 없는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수도계량기는 얼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2018년 새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오영규 삼천1동 경로당 부회장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해 준 것이 고맙다”며, “앞으로도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남 동장은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락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주 찾아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오늘 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018년에는 노인분들의 편안한 여가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와 방난방비 등 지원금액이 약 70여만원 정도 늘어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결론

▲소리나(군산수송초등학교 교사, 전주일보 익산주재 소재원 부장 (유순정 씨 장녀)양·은다빈(이명숙 씨 아들)군= 일시: 20일(토) 오후 1시, 장소: 전주 The-K웨딩홀(군 교직원공제회관) 4층 오페라홀

알려드립니다

▲풍남테니스클럽 회원님들, 20여년 만에 모두 함께 반기운 마음으로 재회합니다

=일시: 1월 20일(토), 장소: 이중분(전주시 중화산동)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8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65	정읍지사 536-30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9157
호지사 010-6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17일 2018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정읍시의회를 방문한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유진섭 의장은 “나눔을 실천하여 기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읍시민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을 주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정읍시의회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각종 사회봉사활동,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 적십자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읍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소방서 의무소방원의 전역식 가져

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17일 정읍소방서에서 군부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50기 의무소방원의 전역식을 가졌다.

의무소방대원은 소방기관에서 화재의 진압·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로서 이 날 전역한 이광운, 최현호 의무소방원은 총 23개월 간 충실히 복무기간을 마쳤다.

이광운 의무소방원은 “그동안 정읍소방서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도 배려와 존중을 통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술 정읍소방서장은 “사고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의무소방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사회에서도 항상 의무소방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쁜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원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